■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1-80.
http://doi.org/10.17948/kcs.2022..96.51

【 특집 :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1 】

『금석집첩』의 왕실 자료와 태조 이성계의 행적*

김문식(金文植)**

목 차

1. 머리말
2. 『금석집첩』의 왕실 자료
3. 이성계의 함흥·영흥 행적
4. 이성계의 개성 행적
5. 이성계의 기타 행적
6. 맺음말

국문초록

이 논문은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관련 금석문은 총 108건이 있으며, 왕실 인물의 묘도문자가 81건, 왕실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사적이 27건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숙종 대부터 정조 대까지 작성되었고, 영조 대에 가장 많은 금석문이 작성되었다. 왕실 관련 금석문은 국왕이 직계가족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선대 국왕의 행적을 드러내기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어제와 어필이 많이 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행적에 관한 금석문에는 어제와 어필이 많이 나타난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A2A03068401).

** 단국대 사학과 교수.

숙종과 영조는 태조의 행적이 있는 곳에 비석을 세우면서 어필을 내렸고, 이를 계승하여 정조와 고종도 어필로 쓴 비석을 세웠다. 이는 국왕들이 태조의 위업을 드러내고 선대 국왕의 행적을 계승하기 위해서였다.

태조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세울 때에는 현지 지방관들의 참여가 많았다. 관찰사는 국왕에게 태조의 기적비를 세우자고 요청하였고, 기적비의 비문을 직접 짓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현지의 수령을 비롯한 지방 관리들도 비석을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태조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다수의 건물이 불타버렸다. 함흥에 있던 함흥 본궁과 독서당, 개성에 있던 목청전과 경덕궁이 이에 해당한다. 전쟁이 끝난 후 일부 건물은 새로 건설하였고, 일부는 빈터만 남아 있었다. 국왕과 관리들은 이러한 곳에 기적비를 세워 태조의 행적을 널리 알렸다. 이는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이었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에는 선대 국왕과 왕실 가족의 행적을 후대에 널리 알리려는 국왕과 신하들의 노력이 잘 나타난다.

주제어: 『금석집첩』, 태조, 독서당, 목청전, 경덕궁.

1. 머리말

일본 京都大學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金石集帖』 219帖(『金石集帖』 200첩, 『金石續帖』 19첩)은 영조 대에 영의정을 역임한 金在魯(1682-1759)와 후대 사람이 편집한 금석문의 탁본첩이다.[1] 이 책에 수록된 금석문의 목록에 대해서는 藤本幸夫가 상세하게 정리한 바 있다.[2]

『금석집첩』의 금석문을 보면 相臣, 正卿, 亞卿, 文堂, 蔭官, 武將/武臣, 先賢, 儒士, 學問, 釋寺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1) 『金石集帖』은 천자문의 天에서 시작하여 惡에서 끝나므로 총 227첩이며, 『金石續帖』 20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金石集帖・育』(1첩)은 처음부터 제작되지 않았고, 『金石集帖・得』(1첩)은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여기에 京都大學 소장본은 219첩이므로, 현재 『금석집첩』은 총 227첩 가운데 220첩이 남아 있고, 6첩(薑・邇・忘・維・空・谷)이 逸失되었다(박철상, 「朝鮮時代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90-92면; 「金在魯家 『金石集帖』 纂集 과정 연구」,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42-43면).

2)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研究(史部)』, 東國大出版部, 2018, 1388-1451면.

『금석집첩』에는 國王, 王妃, 世子, 世子嬪, 王子, 王女와 같은 왕실 인물들의 기록도 다수가 있어 왕실 자료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본고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관련 금석문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태조 이성계의 행적이 있던 장소에 세워진 비석의 금석문을 다루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에 2장에서는 왕실 관련 금석문으로 판단되는 총 108건의 금석문을 내용별, 시기별로 분류하여 이들이 가진 특성을 검토한다. 그리고 3장-5장에서는 이성계의 행적을 기록한 紀蹟碑가 세워진 지역을 함흥・영흥 지역, 개성 지역,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지역의 금석문 내용과 특징을 정리한다. 이를 통해 창업주인 태조 이성계의 행적을 기록한 기적비가 조선 시대를 통해 꾸준히 조성되었음을 밝히려고 한다.

2. 『금석집첩』의 왕실 자료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관련 금석문은 총 108건이며, 금석문이 작성된 시기는 1393년(태조 2) 10월부터 1800년(정조 24)까지이다. 『금석집첩』의 제작 시기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金石續帖・宙』의 존재이다. 원편에 해당하는 『金石集帖・宇』에 수록된 금석문은 1756년(영조 32)에 작성된 것이 마지막이고, 속편에 해당하는 『金石續帖・宙』에 수록된 금석문은 1771년(영조 47)부터 1800년(정조 24)까지 작성된 것이 나타난다.[3] 이를 근거로 판단하면 『금석집첩』은 1770년 이전에 원편이 제작되었고, 1800년 이후 원편에서 누락된 금석문과 원편이 제작된 이후에 작성된 금석문을 추가로 편집한 속편이 제작된 것으로 보인다.[4]

왕실 관련 금석문의 내용은 왕실 인물의 墓表, 墓碣銘, 神道碑銘 등 墓道

3) 『金石續帖・宙』에 수록된 금석문은 「朝鮮國定順王后思陵」(1771년 10월), 「朝鮮國英宗大王元陵」(1776년), 「朝鮮國貞聖王后弘陵」(1785년), 「朝鮮國眞宗大王永陵孝純王后祔左」(1785년),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1800년), 「朝鮮國文孝世子孝昌墓」(1786년), 「御製文孝世子孝昌墓神道碑銘」(1786년)이다.

4) 심경호는 『금석집첩』과 『금석속첩』은 金在魯가 1차로 정리하고, 아들 金致仁과 종손 金鍾秀가 2차로 정리하며, 1805년과 1807년에 세운 비석 탁본이 있으므로 순조 연간에 3차로 정리된 것으로 추정한다(「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4-218면;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84-94면).

文字에 해당하는 것이 81건이고, 왕실 인물의 사적에 해당하는 것이 27건이다. 왕실 인물의 묘도문자를 지위별로 보면 왕과 왕비에 관한 것이 33건으로 가장 많고, 세자에 관한 것이 4건, 세손에 관한 것이 2건, 嬪에 관한 것이 8건, 貴人에 관한 것이 1건, 王子에 관한 것이 29건, 王女에 관한 것이 4건이다.

다음의 〈표 1〉은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관련 금석문을 묘도문자와 사적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왕실 관련 금석문의 내용별 분류

분류	번호	명칭	건립연도	비고
국왕 왕비	天-7	穆王德陵	1410(태종 10) 10월	德陵
	天-8	孝妃安陵	1410(태종 10) 10월	安陵
	天-9	翼王智陵	1393(태조 2) 10월	智陵
	天-10	貞妃淑陵	1393(태조 2) 10월	淑陵
	天-11	度王義陵	1393(태조 2) 10월	義陵
	天-12	敬妃純陵	1393(태조 2) 10월	純陵
	地-1	桓祖定陵神道碑	1622(광해 13) 9월	원본 鄭摠 撰 吳翊 書, 金尙容 篆 李廷龜 記
	玄-1	朝鮮國宣祖大王穆陵懿仁王后 祔中岡仁穆王后祔左岡	1747(영조 23)	穆陵
	玄-2	朝鮮國莊烈王后徽陵	1747(영조 23)	徽陵
	玄-3	朝鮮國瑞懿王后惠陵	1747(영조 23)	惠陵
	玄-4	朝鮮國定宗大王厚陵定安王后祔左	1755(영조 31) 2월	厚陵
	玄-5	朝鮮國文宗大王顯陵顯德王后祔左岡	1755(영조 31) 2월	顯陵
	玄-6	朝鮮國世祖大王光陵貞熹王后祔左岡	1755(영조 31) 2월	光陵
	玄-7	朝鮮國德宗大王敬陵昭惠王后祔右岡	1755(영조 31) 2월	敬陵
	玄-8	朝鮮國睿宗大王昌陵安順王后祔左岡	1755(영조 31) 2월	昌陵
	玄-9	朝鮮國成宗大王宣陵貞顯王后祔左岡	1755(영조 31) 2월	宣陵
	玄-10	朝鮮國中宗大王靖陵	1755(영조 31) 2월	靖陵

	黃-1	朝鮮國章敬王后禧陵	1753(영조 29)	禧陵
	黃-2	朝鮮國文定王后泰陵	1753(영조 29)	泰陵
	黃-3	朝鮮國仁宗大王孝陵仁聖王后祔左	1753(영조 29)	孝陵
	黃-4	朝鮮國明宗大王康陵仁順王后祔左	1753(영조 29)	康陵
	黃-5	朝鮮國元宗大王章陵仁獻王后祔左	1753(영조 29)	章陵
	黃-6	朝鮮國顯宗大王崇陵明聖王后祔左	1721(경종 1)	崇陵
	黃-7	朝鮮國肅宗大王明陵仁顯王后祔左	1720(경종 즉)	明陵
	黃-8	光烈仁敬王后金氏	1720(경종 즉)	翼陵
	黃-9	朝鮮國仁元王后祔右岡	1757(영조 33)	明陵
	宇-1	朝鮮國世宗大王英陵昭惠王后祔左	1745(영조 21)	趙尙絅 撰, 驪善君壘書
	宇-2	朝鮮國景宗大王懿陵宣懿王后祔	1745(영조 21)	宋成明 撰
	宙-1	朝鮮國定順王后思陵	1771(영조 47) 10월	金石續帖 201
	宙-2	朝鮮國英宗大王元陵	1776(영조 52)	思陵
	宙-3	朝鮮國貞聖王后弘陵	1785(정조 9)	弘陵
	宙-4	朝鮮國眞宗大王永陵孝純王后祔左	1785(정조 9)	永陵
	宙-5	正宗文成武烈聖仁莊孝大王	1800(정조 24)	
世子	黃-10	朝鮮國孝章世子墓孝純賢嬪祔左	1728(영조 5) 1752(영조 28)	趙文命 撰 洛昌君 撰?
	黃-11	御筆有明朝鮮國孝純嬪墓誌石	1751(영조 27) 仲冬	
	宙-6	朝鮮國文孝世子孝昌墓	1786(정조 10)	金石續帖 201
	宙-7	御製文孝世子孝昌墓神道碑銘	1786(정조 10)	正祖 撰, 李性源 書, 黃景源 篆
世孫	黃-12	御筆朝鮮懿昭世孫之墓	1752(영조 28)	
	黃-13	御筆朝鮮懿昭世孫墓誌	1752(영조 28)	英祖 撰
嬪	荒-1	仁嬪金氏神道碑銘	1636(인조 14) 11월	李珖 書, 申翊聖 篆, 張維 撰
	荒-2	有明朝鮮國敬惠仁嬪順康園	1755(영조 31) 初秋	
	荒-3	有明朝鮮國贈慶嬪李氏墓	1755(영조 31)	
	可-1	有明朝鮮國淑嬪崔氏神道碑銘	1725(영조 1)	朴弼成 讚, 李枋 書, 李橈 篆
	可-2	朝鮮國和敬淑嬪昭寧園	1753(영조 29)	英祖 書
	表-1	愼嬪金氏墓碑銘	1465(세조 11)	金守溫 撰, 安惠 書篆
	表-2	熙嬪洪氏之墓	1582(선조 15) 9월	宋寅 撰
	表-3	昌嬪安氏神道碑銘	1683(숙종 9) 11월	申晸 撰, 李正英 書, 李杭 篆

貴人	荒-13	朝鮮國貴人慶州金氏之墓	1737(영조 13)	李增 撰, 李楸 書
王子	荒-4	朝鮮國王子義昌君贈諡敬憲公珖之墓 陽川郡夫人許氏祔左	1645(인조 23) 12. 15	李珖
	荒-5	義昌君贈諡敬憲公神道碑銘	1646(인조 24) 8월	
	荒-6	大明朝鮮王子輸忠保社定難翊戴功臣 德源君昭簡公之墓 先室林川郡夫人金氏附于左	1498(연산 4)	李曙
	荒-7	月山大君夫人朴氏之墓表	1506(중종 1) 9. 21	金勘 撰
	荒-8	齊安大君神道碑銘	1546(명종 19) 4월	李荇 撰, 尹安仁 篆, 金魯 書
	荒-9	有明朝鮮國王子錦原君墓碣	1546(명종 19) 4월	宋寅 撰
	日-1	贈撫安大君諡章惠公神道碑	1694(숙종 20)	宋時烈 撰, 李濂 書, 申翼相 篆
	日-2	卞韓昭頃公神道之碑	1418(태종 18)	誠寧大君 卞季良 撰, 成槪 書篆
	日-3	永膺大君墓神道碑	1498(연산 4) 3. 임인	任士洪 撰篆
	日-4	月山大君碑銘	1489(성종 20) 8월	任士洪 撰篆
	日-6	利城君神道碑	1553(명종 8) 5월	鄭士龍 撰, 宋寅 書, 韓景裕 篆
	日-7	永昌大君昭愍公神道碑銘	1625(인조 3) 3월	申欽 撰, 申翊聖 書, 金尙容 篆
	月-1	讓寧大君贈諡剛靖公之墓 隋城府夫人金氏之墓	1462(세조 8)	李禔
	月-2	孝寧大君靖孝公之墓 藥城夫人鄭氏之墓	1486(성종 17)	李補
	月-3	有明朝鮮國輸忠衛社同德 佐翼功臣桂陽君碑銘	1465(세조 11) 2월	
	月-5	密城君章孝公神道碑銘	1480(성종 11)	徐居正 撰, 安琛 書篆
	月-6	有明朝鮮國贈仁城君 諡孝昭公諱糞之墓	1464(세조 10)	
	月-7	王子益陽君順平公神道碑銘	1587(선조 20)	金貴榮 撰, 韓濩 書, 金應南 篆
	月-12	有明綾原大君貞孝公神道碑	1647(인조 25) 10월	宋時烈 撰, 趙相愚 書, 李涵 篆, 崔錫鼎 跋
	盈-1	有明朝鮮國王子仁城君孝愍公墓碣銘	1751(영조 27) 5월	鄭羽良 撰, 李橈 書, 李益炷 篆
	盈-2	王子仁興君靖孝公神道碑銘	1682(숙종 8) 6월	宋時烈 撰, 李㑊 書篆

	盈-3	王孫檜原君諡貞簡公墓碣銘	1732(영조 8) 4월	趙文命 撰, 李泓 書, 李橈 篆
	昃-1	麟平大君贈諡忠敬公神道碑銘	1658(효종 9)	李景奭 撰, 吳竣 書, 吳挺一 篆
	昃-2	有明朝鮮國麟坪大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忠敬公墓誌銘	1658(효종 9)	金堉 撰, 吳挺一 書
	昃-3	有明朝鮮國王子樂善君 贈諡靖憲公神道碑銘	1727(영조 3) 10월	朴弼成 撰, 李楫 書, 李橈 篆
	昃-4	有明朝鮮國王子樂善君贈諡靖憲公瀟之墓 東原郡夫人金氏祔左	1726(영조 2) 8월	
	昃-5	有明朝鮮國王子延齡君 兼五衛都摠府都摠管贈諡孝憲公之墓	1719(숙종 45) 12월	御製, 李橈 書
	昃-6	王子延齡君贈諡孝憲公神道碑銘	1720(숙종 46) 3월	李頤命 撰, 趙泰耉 書, 閔鎭遠 篆
	貞-1	章懿公神道碑銘	1574(선조 7) 6월	廣平大君 沈義謙 撰, 李義健 書 朴廉 篆
王女	表-7	明安公主墓表	1688(숙종 14)	
	表-8	有明朝鮮王女和平翁主之墓	1748(영조 24)	御筆
	表-4	有明朝鮮國貞淑翁主之墓 貞淑翁主墓志	1628(인조 6) 6월	申翊聖 撰書篆
	辰-3	宜嬪昌寧成氏之墓	1786(정조 10) 11월	金石續帖 203 正祖 撰,, 朴明源 書 徐龍輔 陰記書
사적	聽-2	釋王寺藏經	1377(우왕 3) 1708(숙종 34) 4월燈夕 1758(영조 34) 孟夏	李成桂 撰書 自書 盥手敬書
	聽-3	釋王寺事迹碑	1709(숙종 35) 1월	南鶴鳴 識, 李徵夏 篆 金有哲 刻
	地-2	朝鮮國東北面諸陵塋四至記	1412(태종 12)	延嗣宗 記
	地-3	太祖大王誕生舊里	1755(영조 31) 정월	英祖 撰, 趙明履 書
	地-4	聖祖潛邸下馬之碑	1612(광해 4) 7월	韓浚謙 記, 李慶倬 書, 韓仁祿 篆, 尹命之 監造
	地-5	太祖大王讀書堂重建事蹟碑銘	1716(숙종 42) 9월	金演 撰, 金宗衍 書
	地-6	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	1694(숙종 20) 5월	權愈 撰, 李澈 書, 權珪 篆
	地-7	敬德宮丕啓靈慶之碑	1694(숙종 20) 春	御製御筆

	地-8	敬德宮丕啓靈慶之碑銘	1694(숙종 20) 5월	權愈 撰, 吳始復 書, 權珪 篆
	地-9	駐蹕神井記	1476(성종 7) 3월	任元濬 誌, 李叔琥 書, 온양행궁
	地-10	別諭	1734(영조 10) 7월	李箕鎭 書, 北關
	地-11	御製仁祖大王龍潛之時別墅遺基碑	1695(숙종 21) 7월	肅宗 撰, 李杭 書
	宇-3	公州雙樹山城駐蹕事蹟碑	1668(현종 9) 1708(숙종 34) 9월	申欽 撰, 南九萬 書, 崔錫鼎 篆 宋時烈 記 趙相愚 書
	宇-4	文會書院	1703(숙종 2)	御筆, 李畬 撰, 金鎭圭 書 李聖肇 書
	宇-5	望廟樓御製懸板	1745(영조 21)	英祖 撰
	宇-6	耆社諸臣召見日綸音	1756(영조 32)	金在魯 書
	洪-1	仁顯王后誕降舊基	1761(영조 37)	金石續帖 202 英祖 撰
	洪-2	淨業院舊基	1771(영조 47) 9. 6	英祖 撰
	洪-3	黔嚴紀蹟碑銘	1781(정조 5) 8. 15	正祖 撰
	洪-4	兩聖誕降舊基	1787(정조 11)	咸興, 正祖 撰
	洪-5	登望廟櫻紀懷	1762(영조 38)	金致仁 識
	洪-6	御製紀懷	1766(영조 42) 仲冬	金致仁 書
	莫-1	荒山大捷之碑	1577(선조 10) 8월	金貴榮 撰, 宋寅 書, 南應雲 篆, 朴光玉 建
	談-1	御製御筆善竹橋詩	1740(영조 16) 冬	英祖 撰
	談-2	御製御筆杜門洞詩	1751(영조 27)	英祖 撰
	談-3	杜門洞碑	1730(영조 6) 季春	留守 趙遠命 記
	談-4	高麗忠臣不朝峴碑	1740(영조 16) 冬	金若魯 撰, 韓鳳朝 書

다음의 〈표 2〉는 왕실 관련 금석문을 시기별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왕실 관련 금석문은 대부분 숙종-정조 대에 작성되었고, 특히 영조 대에 작성된 금석문은 47건이나 되어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따라서 『금석집첩』에 수록된 금석문은 이를 제작한 김재로가 활동했던 시기의 금석문이 집중적으로 수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2〉 왕실 관련 금석문의 시기별 분류

시기	국왕 왕비	세자	세손	빈	귀인	왕자	왕녀	사적	계(중복)
태조	4								4
태종	2					1		1	4
세조				1		3			4
연산						2			2
성종						3		1	4
명종						3			3
중종						1			1
선조				1		2		1	4
광해	1							1	2
인조				1		4	1		6
효종						2			2
현종								1(1)	1(1)
숙종				1		4	1	9(2)	15(2)
경종	3								3
영조	20	2	2	4	1	4	1	13(1)	47(1)
정조	3	2					1	2	8
계	33	4	2	8	1	29	4	29(2)	110(2)

왕실 관련 금석문에는 국왕이 직접 참여한 御製와 御筆이 많이 나타난다. 이는 왕실 가족의 묘도문자와 사적을 기록한 것이므로 국왕이 직계가족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선왕들의 행적을 현창하는 비문을 작성하였기 때문이다.

왕실 가족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으로 숙종은 여섯 째 아들인 延齡君의 묘비문을 지었다. 영조는 맏손자인 懿昭世孫의 墓誌와 셋째 딸인 和平翁主의 묘비문을 지었고, 생모인 숙빈최씨의 "昭寧園"을 어필로 썼다. 정조는 맏아들인 文孝世子의 신도비명과 후궁인 宜嬪의 묘비문을 지었다.

선왕의 행적을 현창한 것으로 태조의 어제 어필이 있는 釋王寺 藏經碑에 숙종과 영조가 어제 어필을 남겼다. 숙종은 태조의 행적이 있는 穆淸殿 비석의 전서를 쓰고, 敬德宮 비석에 어제 어필을 남겼으며, 인조의 잠저에 세운

비석의 비문을 지었다. 영조는 태조가 태어난 곳, 仁顯王后가 태어난 곳, 종묘의 望廟樓, 단종비 송씨의 행적이 있는 淨業院에 세운 비석의 비문을 지었고, 개성의 선죽교와 두문동에 어제시와 어필을 남겼다. 정조는 영조의 행적이 있는 黔巖에 기적비를 세우면서 비문을 지었다.

왕실 관련 금석문에는 원 비석이 사라진 곳에 새로 세운 경우와 여러 번 시도를 거친 후 세운 경우가 있다. 桓祖定陵神道碑는 무너진 비석을 새로 세운 것이다. 환조의 정릉에는 1393년(태조 2)에 鄭摠이 비문을 짓고,[5] 成石璘이 글씨를 썼으며, 權仲和가 篆額를 쓴 비석이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이 비석은 왜군에 의해 부서지고 말았다. 1611년(광해군 3)에 함경 관찰사 韓浚謙은 정릉 신도비를 다시 세우자고 요청하였고, 광해군은 정총이 지은 비문을 그대로 새긴 새 비석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1612년 9월에 吳翊이 글씨를 쓰고, 金尙容이 篆額을 썼으며, 李廷龜가 새로운 비가 세워진 내력을 陰記로 기록한 신도비가 세워졌다.[6]

公州雙樹山城駐蹕事蹟碑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세운 것이다. 이는 1624년(인조 2)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인조가 공주의 雙樹山城(공산산성)에 피란했던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다. 이괄의 난이 평정된 직후에 우의정 申欽이 비문을 지었으나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고, 40년이 지난 1668년(현종 9)에 관찰사 閔鼎重이 돌을 마련하고 宋時烈은 이 사실을 記文으로 작성하였으나 역시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다시 40년이 지난 1708년(숙종 34)에 관찰사 李善溥가 민정중이 마련해 둔 돌을 사용하여 마무리하였다. 이 비석의 글은 세 부분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신흠이 지은 비문을 南九萬이 쓰고 崔錫鼎이 전액을 썼으며, 둘째는 송시열의 기문을 趙相愚가 썼다. 셋째는 남구만이 그때까지 내력을 기록한 기문을 지어서 썼다. 쌍성산성의 사적비는

5) 『太祖實錄』 권3, 太祖 2년 1월 辛未(25일); 권4, 太祖 2년 9월 庚申(18일).

6) 『金石集帖・地』, 「桓祖定陵神道碑」. "陵下舊有神道碑, 臣得見父老家流傳謄本, 仍洪武二十六年所立, 純忠佐命開國功臣 藝文館春秋館學士 都評議司使 西原君 鄭摠撰. (…) 臣願易以新石, 樹之舊處, 庶幾表著觀瞻, 永傳不墜. (…) 上下禮部覆議, 卽命准行, 涓吉改竪, 文用舊撰. 命弘文館校理吳翊, 往書于石, 漢城府判尹金尙容篆其額, 仍命臣廷龜, 記其梗槩于碑陰. 時萬曆四十年九月云." 鄭摠이 지은 定陵의 神道碑文은 『太祖實錄』에도 수록되어 있다[권4, 太祖 2년 9월 庚申(18일)].

세 차례의 시도 끝에 세워질 수 있었다.[7]

3. 이성계의 함흥·영흥 행적

함흥과 영흥 지역은 태조의 선조가 살았고 태조가 탄생하여 성장한 조선 왕실의 발상지였다. 이 때문에 함흥과 영흥에는 태조의 행적과 관련된 기적비가 많이 세워졌다.[8] 태조와 함흥 영흥 지역의 연고에 대해서는 1694년(숙종 20)에 權愈가 지은 글이 참고된다. 이를 보면 함흥은 태조의 조부인 度王이 살았던 곳이고, 영흥은 도왕과 그 아들이자 태조의 부친인 桓王이 살았고 태조가 탄생한 곳이다.

> 목왕(穆王)은 전주에서 삼척으로 옮겨 살다가 덕원의 용주리(湧珠里)로 이사하였다. 또 그 후에 경흥의 알동(斡東)으로 이사하였다. (…) 익왕(翼王)은 알동에서 적도(赤島)로 이사하여 그릇 굽는 굴에서 거처하였다. 후에 또 덕원의 적전(赤田)으로 옮겨갔으니 적전은 바로 용주리이다. 다시 그 후에 함흥의 송두리(松頭里)로 옮겨갔다. (…) 도왕(度王)은 함흥에서 적전으로 돌아가 살았고, 또 영흥부(永興府)로 옮겨갔다. (…) 환왕(桓王)은 영흥부에 거주하였고, 고려 때 큰 공훈이 있어 경도(京都, 송도)의 집을 받아 그 후사를 열 수 있었다. 네 왕이 모두 변방 지역을 옮겨 다녀서 그 거처가 일정하지 않았다. (…) 우리 태조에 이르러 영흥부의 흑석리(黑石里) 사저에서 탄생하였으니 바로 준원전(濬源殿)이다. 함주(咸州)의 귀주동(歸州洞)에 살기도 하였으니 바로 흥경궁(興慶宮)이다. 후에 송도의 집에서 살았다.[9]
>
> ○「朝鮮國東北面諸陵塋四至記」(『金石集帖·地』)

---

7) 『金石集帖·地』, 「公州雙樹山城駐蹕事蹟碑」.

8) 함흥과 영흥 지역의 왕실 사적은 그림으로도 많이 그려졌다. 이성계와 관련이 있는 사적은 함흥의 本宮, 讀書堂, 慶興殿, 擊毬亭, 祭星壇, 馳馬臺, 영흥의 本宮, 濬源殿, 黑石里, 안변의 釋王寺 등이 있다(박정애, 「18-19세기 咸鏡道 王室史蹟의 시각화 양상과 의의」, 『정신문화연구』 1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25-130면;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 출판부, 2014, 288-313면).

9) 『金石集帖·地』, 「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 "穆王自全州徙居三陟後, 遷德源之湧珠里. 又其後, 遷慶興之斡東地. (…) 翼王自斡東徙赤島, 陶穴而居. 後又徙德源之赤田, 赤田卽湧珠里也. 又其後徙咸興之松頭里. (…) 度王自咸興還居赤田, 又徙永興府. (…) 桓王居永興府, 麗時有大勳, 受第京都, 克開厥後. 四王皆轉徙朔方, 不常其居. (…) 至我太祖誕生于永興府之黑石里私邸, 卽濬源殿也. 或居咸州之歸州洞, 卽興慶宮也. 後居松都第."

태조의 4대조 묘소의 사방 경계를 표시한 표석을 조성한 사실을 기록한 비석이다. 1412년(태종 12) 5월에 태종의 명령에 따라 영흥 부윤으로 있던 延嗣宗이 세웠으며, 비석이 세워진 곳은 咸州(함흥) 冬乙山에 있던 환조의 정릉에서 서쪽으로 410보 떨어진 곳이다. 태조의 4대조 묘소를 열거하면 桓祖의 定陵과 懿惠 왕후의 和陵, 度祖의 義陵과 敬順 왕후의 純陵, 翼祖의 智陵과 貞淑 왕후의 淑陵, 穆祖의 德陵과 孝恭 왕후의 安陵이다.

태조는 조선을 개국한 직후에 자신의 4대조를 追崇하였고,[10] 태종은 이를 계승하여 태조의 4대조에게 시호를 더하였다.[11] 그리고 태종은 4대조 묘소의 사방 경계에 표석을 세우고 관리를 두어 경계 안의 나무를 베거나 화전을 일구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비석에서는 4대조 묘소의 사방 경계를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 신(연사종)이 삼가 여러 릉의 사지(四至)를 아래와 같이 표석에 기록하여 정릉의 서쪽 410보 되는 곳에 세워 후대에 보인다. 환조 연무 성황 대왕(淵武聖桓大王)의 정릉은 함주(咸州) 동을산 기슭에 있으며, 동쪽은 지박동(知博洞), 남쪽은 보고로동로(甫古老洞路), 서쪽은 귀주동로(歸州洞路), 북쪽에는 소천(小川)이 있다. 의혜 왕후의 화릉은 같은 기슭에 있다. 도조 공의 성도 대왕(恭毅聖度大王)의 의릉은 함주 동임산(東壬山) 기슭에 있으며, 동쪽은 장재(長岾), 남쪽은 당산(堂山), 서쪽은 호연천(好連川), 북쪽은 마장동(馬場洞)이다. 경순 왕후의 순릉은 함주 동임산 기슭에 있으며, 동쪽은 구지재(求祉岾), 남쪽은 탄동재(炭洞岾), 서쪽은 거인동점(車引洞岾), 북쪽은 초고대재(草高台岾)이다. 익조 강혜 성익 대왕(康惠聖翼大王)의 지릉은 안변 서임산(西壬山) 기슭에 있으며, 동쪽은 수좌동(水左洞), 남쪽은 봉룡역(奉龍驛), 서쪽은 도로, 북쪽은 산록(山麓)이다. 정숙 왕후의 숙릉은 문주(文州) 동갑산(東甲山) 기슭에 있으며, 동쪽은 대재(大岾), 남쪽은 장동(長洞), 서쪽은 산록, 북쪽은 도지랑답동(都之郎畓洞)이다. 목조 인문 성목 대왕(仁文聖穆大王)의 덕릉은 함주 북계산(北癸山) 기슭에 있으며, 동쪽 남쪽 서쪽은 장재(長岾)이고, 북쪽은 완항동(緩項洞)이다. 효공 왕후의 안릉은 같은 기슭에 있다.[12]

---

10) 『太祖實錄』 권1, 太祖 원년 7월 丁未(28일).

11) 태종은 1392년에 함경도에 있는 태조의 4대조 묘소를 방문하여 태조의 등극 사실을 고하고 陵號를 올렸으며, 현지의 산세를 그린 畫本을 그려서 태조에게 바쳤다[『太祖實錄』 권1, 太祖 원년 8월 丁巳(8일); 10월 丙子(28일)]. 1411년(태종 11)에 태종은 穆王에게 穆祖, 翼王에게 翼祖, 度王에게 度祖, 桓王에게 桓祖라는 諡號를 올렸다[『太宗實錄』 권21, 太宗 11년 4월 壬子(22일)].

이 비석은 태조가 자신의 4대조를 왕으로 추숭하고 묘소를 능으로 봉했던 조치를 계승한 태종이 4대조의 능역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聖祖潛邸下馬之碑」(『金石集帖・地』)

1612년(광해군 4) 7월에 태조의 잠저가 있던 함흥 歸州洞에 세운 하마비이다. 이곳에 있던 함흥 본궁은 임진왜란 때 소실되었다가 1610년에 함경 관찰사 韓浚謙의 감독하에 중수되었다. 이후 한준겸은 하마비의 비문을 짓고, 都事 李慶倬이 썼으며, 敎授 韓仁祿이 전액을 썼다. 비석을 세우는 공사는 判官 尹命之이 감독하였다.

한준겸은 비문에서 귀주동은 환조의 옛집이고 정종과 태종이 태어난 곳이다. 이곳에는 함흥 본궁이 세워져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건물이 불타고 소나무 여섯 그루만 남아 있다고 하였다.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건물을 다시 지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서 말에서 내리지도 않으니 본궁의 문밖에 하마비를 세워 공경함을 표하게 한다고 하였다.[13]

○「太祖大王讀書堂重建事蹟碑銘」(『金石集帖・地』)

1716년(숙종 42) 9월에 함흥 귀주동에 태조의 독서당을 중건하면서 세운

12)『金石集帖・地』,「朝鮮國東北面, 諸陵塋四至記」.“臣謹將諸陵四至, 備載于石如左, 立于定陵之西百四十步, 以示後來. 桓祖淵武聖桓大王定陵, 咸州東乙山原, 東知博洞, 南甫古老洞路, 西歸州洞路, 北小川. 懿惠王后和陵, 同原. 度祖恭毅聖度大王義陵, 咸州東壬山原, 東長岾, 南堂山, 西好連川, 北馬場洞. 敬順王后純陵, 咸州東壬山原, 東求祉岾, 南炭洞岾, 西車引洞岾, 北草高台岾. 翼祖康惠聖翼大王智陵, 安邊西壬山原, 東水左洞, 南奉龍驛, 西路, 北山麓. 貞淑王后淑陵, 文州東甲山原, 東大岾, 南長洞, 西山麓, 北都之郎畓洞. 穆祖仁文聖穆大王德陵, 咸州北癸山原, 東南西長岾, 北緩項洞. 孝恭王后安陵, 同原.”

13)『金石集帖・地』,「聖祖潛邸下馬之碑」.“潛邸下馬碑陰記. 聖祖龍潛時, 始居歸州洞桓祖舊邸, 誕恭靖・恭定二聖, 晩乃胥于此地, 嘗樹種六松, 以松軒爲號, 見於詩歌者, 皆可徵也. 開國之後, 設本宮, 置良屬三百戶, 以備灑掃. 壬辰之亂, 舊宮盡灰燼, 而六松獨免延燕, 蒼鬚大幹, 鬱然猶存, 異哉. 今上卽祚, 首命重刱, 湯沐之規, 於是乎粗完. 第宮在村閭中, 民俗呢焉, 牛馬而過者, 睨而不知下. 噫. 式路馬所以廣敬也, 況以聖祖之所居, 王業之所基, 且有桑梓必恭之義, 其欲導民致禮者, 當何如也. 臣忝守豐沛, 職王法紀, 爲立石宮門之外, 使大小人員皆下馬, 知所敬而肅之云.

비석이다. 함경 관찰사 金演이 비문을 짓고, 兵馬節制都尉로 있던 金宗衍이 글씨를 썼다. 태조의 독서당은 雪峰山 아래의 사찰 옆에 있었는데, 전란을 여러 번 거치면서 건물은 무너지고 터만 남았다. 후에 승려 德淳이 이곳에 작은 재실을 지어 유허지임을 표시하였으나 건물이 퇴락하였다. 이때 함흥 본궁의 別差인 具益成이 숙종에게 건물을 새로 지을 것을 요청하였고, 숙종이 이를 허락하여 독서당을 중건하게 되었다. 건물을 세울 때는 구익성이 정성을 기울였고, 이 비문을 쓴 김종연도 큰 비용을 내어 공사를 돕고 독서당의 편액 글씨도 썼다.

기적비의 중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함흥의 동쪽 10리쯤 되는 곳에 귀주동이 있고, 설봉산 아래에 절이 있으며, 절 옆에 독서당이 있으니 바로 태조 강헌 대왕(康獻大王)이 왕이 되기 전에 책을 읽었던 곳이다. (…) 여러 차례 전란을 거치면서 건물은 무너지고 터만 남았다. 중세에 덕순(德淳)이라는 승려가 작은 재실을 지어 유허지임을 표시하였는데, 연대가 멀어지니 용마루와 지붕이 기울고 무너졌다. (…) 이번에 함흥 본궁의 별차(別差)인 신 구익성(具益成)이 이를 보고 한탄스러워 개창(改創)하자는 뜻으로 말을 달려 내사(內司)에 보고하여 임금께 전해지도록 하였다. 임금께서 듣고 느끼시는 바가 있어 바로 내사에 명하여 중수 비용을 돕게 하셨다. 구익성은 삼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고 정성을 기울여 경영하고, 이에 함경 감영에서 공력을 모으고 일을 잘 처리하여 중수하는 일을 마쳤다. 판관(判官) 신 김종연(金宗衍)도 재력을 넉넉히 보충하고, 또 독서당의 편액을 썼다. 함흥 백성들이 기뻐하며 달려오지 않는 이가 없어,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공역이 이루어졌다.[14]

○「太祖大王誕生舊里」(『金石集帖・地』)

태조(1335-1408)가 탄생한 지 6주갑이 되는 1755년(영조 31)에 태조가 태어난 영흥 흑석리에 세워진 비석이다. 영조가 어필로 "太祖大王誕生舊里" 여덟 글자를 쓰고, 비석의 음기를 지었으며, 예문관 제학으로 있던 趙明鼎이 음기를 썼다.

---

14) 『金石集帖・地』, 「太祖大王讀書堂重建事蹟碑銘幷序」. "咸興之東十里許歸州洞雪峯山下有寺, 寺傍有堂, 卽我太祖康獻大王龍潛時讀書之所. (…) 累經兵燹, 堂圮址存. 越在中世, 有僧曰德淳者, 構小齋, 表遺墟, 而年代寢遠, 棟宇傾頹. (…) 今本宮別差臣具益成, 乃能慨然於此, 以改創之意, 馳報內司, 以轉聞于九重. 聖上聞而興感, 卽命內司, 以助雕繪之具. 益成, 祗承明命, 殫誠經紀, 於是自臣營, 鳩功敦事, 繕修畢擧. 判官臣金宗衍, 亦優補財力, 又書堂額. 則咸之民, 莫不歡抃而子來, 盖不日而功告成."



〈그림 1〉 영조 어필 "太祖大王誕生舊里"(『金石集帖・地』)

1755년 1월 4일에 영흥 유생인 趙東彬이 태조가 탄생한 흑석리에 표지석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조동빈은 健元陵의 誌文, 『동국여지승람』의 기록, 1612년(광해군 4)에 함경 관찰사 한준겸이 이곳의 경작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은 일 등을 근거로 표지석을 세울 것을 요청하였다. 영조는 조동빈과 함흥 감찰 文啓周를 만나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여덟 글자의 어필을 내리고, 조동빈을 경기도 참봉으로 임용하였다.[15]

영조가 작성한 음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리 태조께서 탄강(誕降)하신 해는 바로 을해년(1335)이다. 지금은 소자(영조)의 회갑 다음 해이니 역시 이 해이다. 옛일을 추억하니 이것이 어찌 꿈에라도 생각했겠는가. 지금 준원전(濬源殿)은 바로 영흥부 흑석리 환조의 옛집이자 태조가 탄생한 곳임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수록되어 있다. 전후로 영흥 사람들은 준원전의 동북쪽으로 2백 수십 보가 되는 곳을 가리켜 '이곳이 성조(聖祖, 태조)의 옛터'라 하니, 어느 것이 옳은지 모르겠지만 흑석리인 것은 한 가지이다. 준원전에는 이미 집을 세웠으므로 이곳에는 특별히 비석을 세워 그 마을을 기록한다. 오호라, 우리 성조께서 나라를 개창하고 지금 4백년 가까이 소자에까지 전해졌고, 성조께서 탄강하신 해를 만나니 슬픈 생각이 배나 더하다. 황명 숭정 기원후 세 번째 을해년(1755) 춘정월(春正月)에 삼가 비면(碑面)에 여덟 글자를 쓰고, 또 이를 기록하고 관각(館閣)의 신하에게 비석의 음기를 쓰게 한다.[16]

15) 『英祖實錄』 권83, 英祖 31년 1월 戊寅(4일); 『承政院日記』 英祖 31년 1월 4일(戊寅); 『國朝寶鑑』 권64, 英祖朝 8, 31년(乙亥, 1755) 1월.

1905년(광무 9)에 고종 황제는 영조의 행적을 계승하여 같은 장소에 「太祖高皇帝誕降舊里碑」를 세웠다. 이 비는 영조가 세운 「太祖大王誕生舊里」비 옆에 나란히 섰으며, 전면에는 고종의 어필로 "太祖高皇帝誕降舊里" 아홉 글자를 썼다. 그리고 음기에서는 1897년에 고종이 圜丘壇에서 황제로 등극하고 1899년에 태조를 高皇帝로 추존하고 제천례에서 배향한 사실을 밝혔다.[17] 음기의 글씨는 궁내부 특진관으로 있던 尹用求가 썼다.

이와 별도로 정조는 1787년(정조 11)에 함흥 귀주동에 「兩聖誕降舊基」비를 세웠다. 이곳은 환조와 태조가 살았고 정종과 태종이 탄생한 곳으로, 이미 慶興殿이 세워져 있었다. 정조는 이 해가 정종이 태어난 지 6주갑이 되는 해이므로, 영조가 태조의 탄생 6주갑을 맞아 「太祖大王誕生舊里」 비석을 세운 일을 계승하여 이 비석을 세웠다.[18]

이를 보면 함흥과 영흥에 있는 태조의 사적비는 함경 관찰사나 영흥 부윤과 같은 지방관이 주도하여 세웠고, 태조가 탄생한 영흥 흑석리에는 특별히 영조의 어필비가 세워졌다.[19]

---

16) 『金石集帖・地』, 「御製永興府黑石里碑陰記」. "我太祖誕降之年, 卽乙亥也. 而今小子回甲翌年, 亦是年也. 追憶昔年, 是豈夢料. 今濬源殿, 卽永興府黑石里桓祖舊邸, 太祖誕生之地, 載在『輿地勝覽』. 而前後永興人, 則指殿東北二百數十步曰, 此地乃聖祖舊基, 未知孰是, 而其爲黑石里則一也. 於濬源殿, 旣以建宇, 故於此地, 特爲豎石以識其里. 嗚呼, 我聖祖開刱, 今近四百年, 傳次在小子, 而遇聖祖誕降之年, 愴懷一倍矣. 歲皇明崇禎紀元後三乙亥春正月, 手敬書八字於碑面, 且述此識, 令館閣之臣, 書于碑陰."

17) 『太祖高皇帝誕降舊里』(K2-5226). "永興郡黑石里, 卽桓祖舊邸, 而高皇帝誕降之地也. 英廟乙亥, 竪碑于此, 碑面八字, 英廟御筆也. 今將改書碑面, 而聖祖故蹟, 不敢泯也. 朕小子又親書碑面, 樹于旁, 識于碑陰, 因記其事焉. 歲在丁酉, 百官萬姓, 一辭同聲, 咸推戴朕小子, 卽皇帝位. 三讓不獲, 乃受命于圜丘. 粤二年己亥, 躋祀高皇帝以配天. 刱業垂統, 立萬世丕丕基, 巍勳鴻烈, 施及子孫, 益大而昌, 克紹有周明堂郊祀之制, 又啓我萬萬世無疆之緖, 於戲休哉."

18) 『弘齋全書』 권15, 碑, 「兩聖誕降舊基碑」. "咸興歸州洞, 卽我桓祖・太祖舊邸, 而定宗・太宗誕降焉. 植以松, 扁以慶興殿者, 其址也. 舊無紀實之碑, 太歲丁未, 適符於太宗誕降之甲, 而竪石之議, 繼湧珠赤島・赤池而成. 噫, 亦異也. 昔在英考乙亥, 以太祖誕降之在是年, 立碑于永興府黑石里, 御製陰記, 以識其基. 後三十有三年, 而小子又擧斯役, 殆所以命之也夫. 太宗大王誕降歲七回丁未, 小子嗣服之十一年."

19) 1917년 5월에 순종은 황제의 복식을 갖추고 함흥 본궁, 定陵, 和陵, 釋王寺를 방문하였다(李旺茂, 「1910년대 순종의 창덕궁 생활과 行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312-319면).

4. 이성계의 개성 행적

개성은 태조의 부친인 환왕 때 이사하여 살기 시작한 곳이고, 태조가 고려의 관리로 활동하면서 조선을 개국한 장소였다. 이런 연유로 개성에는 태조의 잠저인 穆淸殿과 敬德宮이 있었고,[20] 이곳에는 태조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이 세워졌다.

○ 「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金石集帖・地』)[21]

1694년(숙종 20) 5월에 태조가 개성에서 살았던 옛집인 목청전에 세운 비석이다. 숙종은 전면의 "穆淸殿丕啓靈慶之碑" 아홉 글자를 어필로 썼고, 음기는 숙종의 명에 따라 예조판서 權愈가 짓고, 花春君 李灈이 썼으며, 도승지 權珪가 전액을 썼다.



〈그림 2〉 숙종 어필 "穆淸殿丕啓靈慶之碑"(『金石集帖・地』)

태종은 1418년(태종 18) 개성에 행차하는 길에 이곳을 방문하였으며, 태조의 옛집을 수리하여 목청전을 세우고 태조의 영정을 모셨다.[22] 그러나

20) 穆淸殿과 敬德宮의 연혁에 대해서는 윤정, 「조선후기 開城 潛邸舊基의 표장과 국왕의 인식: 숙종・영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문화사』 상, 일지사, 2007, 300-305면 참조.

21) 이 금석문은 『松都誌』에도 수록되어 있다(권3, 宮殿, 「穆淸殿」. "穆淸殿. 太宗朝增修爲殿, 奉安太祖御容. 壬辰寇難, 殿燬爲基. 孝廟丁酉, 命周墻. 顯廟庚戌, 又命修治. 肅廟癸酉, 命以御筆'穆淸殿丕啓靈慶之碑'九字, 豎碑建閣.").

임진왜란 때 목청전 건물은 불타고 태조의 영정은 사라져 버렸다. 이후 효종 대에 목청전 터에 담장을 쌓고 문을 설치하였으며, 나무를 심고 하마비를 세웠다. 그리고 현종 대에도 나무를 심고 담장을 쌓았다.[23]

1693년(숙종 19) 가을에 숙종이 개성에 행차하여 齊陵과 厚陵을 배알하고, 목청전 터와 만월대, 남대문을 방문하였다.[24] 이때 朗原君 李侃이 개성에는 경덕궁과 목청전의 옛터가 있으므로 태조의 聖蹟을 드러내는 비석을 세우자고 건의하였고, 숙종이 이를 받아들여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 다음은 비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 우리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정의 광덕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이 천명을 받지 않았을 때의 옛집으로 개성에 있는 것이 둘이니, 하나는 경덕궁(敬德宮)이고, 둘은 목청전(穆淸殿)이다. 목청전은 나성(羅城)의 숭인문(崇仁門) 안에 있으며,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본다. (…) 금상(今上, 숙종) 19년 가을에 후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개경을 지나셨다. 왕손인 낭원군 이간(李侃)이 앞에서 아뢰었다. '경덕궁과 목청전의 옛터가 모두 이곳에 있으나 연대가 흘러 다시 옛일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 오래되면 분명하게 살피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침 상(숙종)께서 이 도읍에 행차하셨으니, 올해를 기한으로 하여 유허(遺墟)를 수리하고, 비석을 세우고 성적(聖跡)을 기록하여 뒷사람이 보게 해야 합니다.' 상께서 '참으로 그러하니 사실 나의 뜻이다.'라고 하시고, 직접 비액(碑額)을 지어 '穆淸殿丕啓靈慶之碑'라고 하셨다. 또한 신 권유(權愈)에게 비문을 지어 돌에 새기라고 하셨다.[25]

---

22) 목청전의 이름을 啓命殿에서 穆淸殿으로 바꾼 것은 1422년(세종 4)이다[『世宗實錄』 권15, 世宗 4년 1월 甲申(26일)].

23) 『金石集帖・地』, 「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 "肆我太宗大王旣受位, 增修爲穆淸殿, 奉安太祖大王影幀. 置祠官, 守衛惟謹, 非惟旌景炎, 亦漢所謂建威銷崩一民之至權也. 壬辰寇難, 殿旣焚, 影幀失在所, 遂罷祠官, 殿基爲墟, 民頗耕牧其中. 孝廟朝, 守臣上殿, 基荒廢狀, 上命繞基築垣而設門, 內樹松檜, 立下馬碑, 令民不得妄入. 又令不得無所省而行過. 顯廟朝, 又申命樹築, 禁如令."

24) 1693년 숙종의 개성 행차에 대해서는 김우진, 「1693년 숙종의 개성 행차와 의미」, 『한국문화』 88,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9, 170-176면; 김지영, 「경쟁하는 두 왕조—조선 국왕의 개성 행행 의례와 '문명치지'의 약속」, 『서울학연구』 86,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22, 130-133면 참조.

25) 『金石集帖・地』, 「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 "我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 未受命時舊宅在松京者二. 一曰敬德宮, 二曰穆淸殿. 殿在羅城崇仁門內, 背北面南. (…) 今上十九年秋, 謁厚陵, 還過開京. 王孫朗原君侃, 前奏曰, '敬德宮・穆淸殿舊址, 皆在此, 年代遂往, 無復有識前事者, 恐久而不照察. 會上之幸此都也, 宜令淮當年而限修遺墟, 立石紀聖跡以觀後.' 上曰, '誠然, 實予意也.' 仍親製碑額曰, '穆淸殿丕啓靈慶

개성 목청전에 세워진 「穆淸殿丕啓靈慶之碑」는 창업주인 태조의 업적을 현창하려는 숙종의 어필비이다.

○ 「敬德宮丕啓靈慶之碑銘」(『金石集帖・地』)

1694년(숙종 20) 5월에 태조가 개성에서 살았던 옛집인 敬德宮에 세운 비석이다. 숙종은 전면의 "敬德宮丕啓靈慶之碑" 아홉 글자와 칠언절구 어제시를 어필로 썼다. 숙종의 어필은 1694년 봄에 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음은 숙종의 어제시다.

작년에 태조께서 다시 왕이 되신 해를 만났는데	去年重遇龍飛歲
오늘은 성조(聖祖)의 궁을 기쁜 마음으로 바라보네.	今日欣瞻聖祖宮
어찌 추모하는 마음이 배나 더할 뿐이랴	奚但羹墻追慕倍
큰 공렬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끝이 없네.	緬懷洪烈意無窮

비석의 음기는 숙종의 명에 따라 예조판서 權愈가 짓고, 호조판서 吳始復이 썼으며, 도승지 權珪가 篆額을 썼다. 같은 시기에 세워진 「穆淸殿丕啓靈慶之碑銘」과 비교하면, 음기를 짓거나 전액을 쓴 사람은 같고 음기를 쓴 사람만 달랐다.

1399년(정종 1) 9월에 靖安君(태종)이 이 집에서 살 때 침실 위에 白龍이 나타나 그 머리가 국왕이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장차 태종이 왕위에 오를 것이라는 조짐이었다. 이듬해 겨울에 태종은 壽昌宮에서 왕위에 올랐고, 옛집을 수리하여 敬德宮이라 하고 관리를 두어 지키게 하였다. 임진왜란 때 경덕궁 건물은 불타버렸고, 효종 8년(1657)에 경덕궁 터에 담장을 쌓고 나무를 심었으며, 대문을 설치하고 하마비를 세웠다. 그리고 현종 10년(1669)에 대문과 하마비를 수리하고 나무를 더 심었다.[26]

之碑'. 又命臣愈, 撰文勒石."

26) 『金石集帖・地』, 「敬德宮丕啓靈慶之碑銘」. "太祖旣創曆, 太宗大王封靖安君, 仍御此第. 己卯秋九月天欲曙, 有白龍見于寢室上. 鱗甲照爛, 頭向御所, 左右驚走, 相告報, 聚觀之, 已而雲霧瀰鬱, 不知所之. (…) 其明年庚辰冬, 太宗受禪于壽昌宮, 增修舊邸爲敬德宮. 置官居守, 盖以興王之所根抵而恢崇之也. 後二百年, 南寇之難, 殿宇被焚, 燒燭舊址, 在民墐處其中. 孝廟八年, 松京留守奏言宮殿廢狀, 上命准量舊所, 裁廣袤, 周垣其基, 種松檜. 丈尺爲行, 縱橫相當, 使不得耕牧. 置門立下馬碑, 令行者不得騎而過. 顯廟十年, 復命修治門碑, 益樹木."

1693년(숙종 19) 가을에 숙종이 후릉을 배알하고 개성에 행차하면서 경덕궁터에 들렀고, 어제시 1章을 지었다. 이때 숙종은 낭원군 이간의 건의를 받아들여 태조의 행적을 드러내고, 자신의 어제시를 새긴 비석을 세우게 하였다. 다음은 비문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다.

> 경덕궁은 송도의 추동(楸洞)에 있으니, 우리 태조 강헌 지인 계운 성문 신무 정의 광덕대왕(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의 옛집이다. 경덕궁은 용수산(龍岫山)의 북쪽 기슭을 차지하고 서쪽을 등지고 동쪽을 바라본다. (…) 금상(숙종) 19년 가을에 후릉을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송경(松京)을 지나셨다. 추동에 이르러 옛 궁터를 살펴보고 건물의 제도를 상상하고 오랫동안 배회하셨다. 한숨을 쉬시면서 길이 사모하고 스스로 시 1장을 지었으며, 시를 짓는 중에 말씀하시길 '우리 조종(祖宗)께서 이 궁에 바탕을 두고 어려움 속에 대업을 이루었으니 내가 어찌 스스로 덕을 닦아 영원히 천명에 부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위대하도다, 이는 하늘과 사람이 바라는 것이다. 얼마 후 낭원군 이간의 말을 받아들여 궁터에 비석을 세웠다. 감독하는 종신(宗臣)이 다시 비면에 어제시를 새겨 뒷사람이 보게 하자고 청하니 상께서 허락하셨다. 이에 직접 시를 써서 종신에게 이를 본떠서 새기게 하셨다. 또한 직접 비액(碑額)을 지어 '경덕궁비계영경지비(敬德宮丕啓靈慶之碑)'라 하고, 신 권유(權愈)에게 명하여 글을 짓고 그 뒤에 새기라고 하셨다.[27]

이를 보면 개성에 있는 태조의 기적비는 1693년(숙종 19) 가을에 숙종이 개성에 행차한 것을 계기로 세워졌으며, 특별히 숙종의 어필과 시를 새긴 어필비가 되었다. 숙종의 행차는 후대 국왕에게 계승되어 1740년(영조 16) 영조의 개성 행차,[28] 1872년(고종 9) 고종의 개성 행차로 이어졌다.[29]

---

27) 『金石集帖・地』, 「敬德宮丕啓靈慶之碑銘」. "敬德宮, 在松都之楸洞, 我太祖康獻至仁啓運聖文神武正義光德大王龍潛舊宅也. 宮據龍岫山北麓, 背西面東. (…) 今上十九年秋, 謁厚陵, 還過松京. 至楸洞, 臨觀舊宮基, 想見殿閣廊序之制, 徘徊久之. 喟然永慕, 自製詩一章, 詩中聖旨若曰, '我祖宗, 肇基于此宮, 艱難創大業, 我其曷敢不聿修德而永配命乎.'云爾, 大矣哉, 此天人之望也. 已又納朗原君侃言, 立石于宮址, 監董宗臣, 又奏請刻御詩于碑面以視後, 上許之. 遂親書詩, 付宗臣, 令模刊. 又親題碑額曰'敬德宮丕啓靈慶之碑', 仍命臣愈爲文, 勒其後."

28) 1740년(영조 16)에 개성을 방문한 영조는 숙종의 어필비를 보았고, 숙종의 어제시 운자를 따서 시를 지었다(김문식,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141-145면).

29) 1872년(고종 9)에 고종은 조선 개국 8주갑 480주년을 맞아 개성을 방문하였으며, 목청전과

5. 이성계의 기타 행적

함흥과 영흥은 태조 이성계가 태어나 성장한 지역이고, 개성은 태조가 관리로 활동하면서 조선을 건국한 곳이므로 그의 행적과 관련된 비석들이 세워졌다. 그러나 태조의 활동 무대는 전국에 걸쳐 있었으므로, 다른 지역에도 태조의 행적에 기록한 기적비가 세워졌다.

○「荒山大捷之碑」(『金石集帖・莫』)

1380년(우왕 6) 9월에 태조가 전라도 운봉현에 있는 荒山에서 왜구를 격퇴한 전공을 기록한 비석이다. 1577년(선조 10) 8월에 호조 판서인 金貴榮이 짓고, 礪城君 宋寅이 썼으며, 호조 참판인 南應雲이 전액을 썼다. 비석을 세우는 일은 운봉 현감인 朴光玉이 주관하였다.

황산대첩은 1380년에 양광・전라・경상도순찰사로 있던 이성계가 지리산 근처의 황산에서 왜구를 격퇴하고 승리한 싸움이다. 김귀영은 황산대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 고려 말에 나라는 갈수록 위태로워지는데 섬 오랑캐들이 그 틈을 타서 성읍(城邑)을 도륙하고 불태우니, 죽은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고 지나는 곳마다 유혈이 낭자하여 모든 산천이 쓸쓸하였다. 함양(咸陽) 사람을 모두 죽이고, 운봉(雲峰)을 불태웠으며, 인월(引月, 남원시 인월리)에 주둔해 있으면서, 말을 배불리 먹여 북쪽으로 올라간다고 떠드니 나라 안팎이 크게 두려워하였다.
>
> 태조께서 남원에서 출발하여 운봉을 넘고 황산으로 달려가 정봉(鼎峰) 위에 올라가서 형편을 살펴보았다. 날랜 군사들이 앞뒤에서 서로 호응하며 달려가 공격하니, 10배가 넘는 적들을 하루가 걸리지 않아 모두 소탕하였다.[30]

경덕궁을 방문하였다(김재은,「1872년 개성 행행(行幸)에 나타난 정치적 지향과 효과」,『韓國思想史學』48, 한국사상사학회, 2014, 294-297면).

30)『金石集帖・莫』「荒山大捷之碑」. "謹按麗季, 國步虧殄, 島夷乘之, 屠城燒邑, 殺人盈野, 所過波血, 千里蕭然. 殲咸陽, 火雲峰, 屯引月, 聲言穀馬北上, 中外大震. 太祖, 發南原, 踰雲峰, 抵荒山, 登鼎峰之上, 相視形便. 指授掎角, 盡銳奮擊. 十倍之賊, 不終日而蕩除."

이 비석이 세워진 것은 1575년(선조 8)에 전라 관찰사 朴啓賢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박계현은 운봉현에서 동쪽으로 16리 떨어진 곳에 있는 황산은 태조가 왜적을 크게 무찔렀던 곳인데 세월이 오래되어 장소를 알기 어려우므로 커다란 비석을 세워 후세에 전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선조는 전라도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호조 판서 김귀영에게 비문을 짓게 하였다. 김귀영은 태조의 뛰어난 공적이 역사서에 잘 나오지만, 남쪽에 있는 수백 개의 산 가운데 바로 이 산에서 태조의 공적이 이뤄졌음을 밝힌다고 하였다.

> 만력 3년(1575) 가을에 전라도 관찰사 박계현이 보고하였다. '운봉현의 동쪽 16리에 황산이 있는데, 우리 태조 강헌대왕께서 왜구(倭寇)를 크게 물리친 곳입니다. 세월이 흘러 땅 이름도 어그러지고 다니는 길도 잘 알 수가 없어 정확한 지점을 분별할 수 없게 되었으니, 천백 년 후에 높은 곳은 밋밋해지고 낮은 곳은 잠기게 되어 더욱 희미해지면 그 장소를 모르게 될까 걱정입니다. 큰 돌을 하나 세워 기록해 달라고 고을의 늙은이부터 어린이까지 함께 관청으로 와서 하소연하니, 지방의 관리로써 감히 보고하지 않을 수 없어 삼가 아룁니다.' 상(선조)께서 그 건의를 받아들여 도에서 일을 주관하게 하고 신 귀영(貴榮)에게 글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 우리 성조(聖朝, 태조)의 크고 높은 공열(功烈)은 역사서에 환하게 실려 있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밝히니, 천지에 가득 차고 고금에 밝게 빛나는 것이 이 산처럼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니 굳이 이러한 사정을 돌에 새겨 형용한 뒤에야 후세에 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남쪽의 산 가운데 우뚝하니 높고 큰 산이 무려 수백 개인데 성조의 큰 공훈은 바로 이 산에 있으니, 하늘이 만든 높은 산과 아름다움을 짝할 만하고, 그 높이 솟은 산을 영원히 우러러볼 것입니다.[31]

「황산대첩지비」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에 의해 파괴되어 파편만 남았다. 그러다가 1957년에 남아 있던 龜趺와 螭首를 그대로 이용하여 중건하였다. 이 비는 현재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에 있다.

---

31) 『金石集帖・莫』「荒山大捷之碑」. "萬曆三年(1575)秋, 全羅道觀察使朴啓賢馳啓曰, '雲峰縣之東十六里有荒山, 寔我太祖康獻大王大捷倭寇之地也. 年代流易, 地名訛舛, 行路躊躇, 指點有不能辨認, 誠恐千百世之後, 高者夷, 下者湮, 益將眛眛而莫知其所. 願樹一大石以識之, 縣之耆倪, 相與懇于官, 守土之臣, 不敢抑以報, 謹上聞.' 上可其啓, 命其道, 幹其事, 仍命臣貴榮文之. (…) 洪惟我聖祖, 宏功峻烈, 照載國乘, 照人耳目, 軒天地, 耀古今, 當與玆山. 而終始不必區區斲石, 爲之形容然後, 可以傳示無窮也. 雖然, 南方之山, 巍然高大者, 無慮百數, 而聖祖大勳之集, 適在於玆山, 則可與天作高山, 儷美並稱, 而崧高維嶽, 萬世仰止者矣."

○「釋王寺藏經」(『金石集帖・聽』)

1377년(우왕 3) 여름에 이성계가 鄭夢周, 李和 등과 함께 淸州에 주둔해 있다가 海陽 廣積寺에 있던 大藏經과 佛象, 法器를 배로 실어와 安邊 釋王寺에 보관한 일을 기록한 비석이다. 비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분되며, 각각 태조, 숙종, 영조의 어필을 새겼다.

첫째 부분은 태조가 직접 기록한 것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글의 아래에는 '面', '事', '助', '商', '淸', '毁', '峯' 일곱 글자는 획을 보충했다고 기록했는데, 숙종이 추가한 것이다.

> 동북면 도원수 완산부원군 이성계(李成桂)와 상원수(上元帥) 판밀직사사 강서(姜筮), 부원수 당성군 홍징(洪徵), 조전원수(助戰元帥) 전첨서밀직사사(前簽書密直司事) 상의(商議) 유원(柳源), 전지밀직사사(前知密直司事) 상의 정몽주(鄭夢周), 전밀직부사 이화(李和) 등은 홍무 10년(1377) 여름에 명을 받아 와서 청주(淸州, 북청)에 주둔하였다. 대장경 1부(部)와 불상, 법기(法器)가 해양(海陽)의 광적사(廣積寺)에 있다는 말을 들으니, 전쟁이 나자 승려들은 도망가고 사찰은 훼손되었으며, 대보(大寶)는 거의 잃어버려 마음에 실로 측은하였다. 전중랑장(前中郎將) 김남련(金南連)을 파견하여 배에 실어 왔다. 잃어버린 몇 상자의 축(軸)을 보충하여 전부(全部)를 완성하고, 안변부 설봉산의 석왕사에 두어 영원히 임금의 장수를 빌고 나라를 복되게 하는 밑천이 되게 한다.[32]

둘째 부분은 1708년(숙종 34) 4월 초파일에 숙종이 어필로 쓴 것이다. 내용은 석왕사 승려가 태조가 대장경을 보관한 일을 기록한 158글자를 새긴 현판을 가지고 왔는데, 분명한 표식이 없어 태조의 어필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석왕사 승려는 이 글을 비석에 새겨 후세에 전하려 하니, 자신은 글을 여러 번 살펴보고 기문을 쓴다고 하였다.[33] 이를 보면 1708년 이후에 태조의

32)『金石集帖・聽』「釋王寺藏經」. "東北面都元帥 完山府院君 李成桂, 上元帥 判密直司事 姜筮, 副元帥 唐城君 洪徵, 助戰元帥 前簽書密直司事 商議 柳源, 前知密直司事 商議 鄭夢周, 前密直副使 李和等, 於洪武十年夏, 受命而來, 次于淸州. 聞大藏一部及佛像法器, 在海陽廣積寺, 兵火之餘, 僧亡寺毁, 大寶幾於盡失, 心實惻然. 遣前中郎將金南連, 舟載以來. 補其所失若干函軸, 以成全部, 置于安邊府雪峯山釋王寺, 永爲壽君福國之資云."

33)『金石集帖・聽』「釋王寺藏經」. "鶴城雪峰山釋王寺, 卽我太祖大王潛邸時所建. 吉夢休徵, 莫非天啓景運之祥, 非尋常寺刹比也. 況此鏤板一百五十有八字, 俗傳是我太祖大王手筆也. 旣無標識, 未敢必然, 而寺中寶藏,

어필이라 전해지는 첫째 부분과 숙종의 기문을 새긴 비석이 석왕사에 세워졌다.

셋째 부분은 1758년(영조 34)에 영조가 어필로 추가한 「安邊釋王寺碑文追記」이다. 영조는 글을 작성한 시기를 "洪武壬申後三百六十六年孟夏"라고 표시했는데, '홍무 임신년'은 바로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1392년을 가리킨다. 영조는 이 글을 새긴 비석을 기왕에 있던 비석 옆에 세우고, 태조의 행적이 담긴 『北道陵殿誌』의 序와 追錄을 지었다.[34] 흥미로운 것은 영조는 『북도능전지』의 서문에서도 글을 작성한 시기를 "洪武壬申後三百六十六年孟夏中旬七日"이라 표시하여, 태조가 조선을 건국한 해를 기준으로 하였다.[35]

영조는 追記에서 태조가 동북면 도원수 시절에 광적사의 물품을 석왕사로 옮겨 놓은 사실을 어필로 기록하고, 1708년에 숙종이 이 글을 보고 小識를 써서 새기게 한 것을 자신이 직접 보았다고 하였다. 그리고 태조가 창업하여 후손에게 전하고, 숙종은 이를 계승하여 선조의 행적을 밝혔는데, 자신은 숙종을 계승하여 이 글을 지음으로써 지난 일을 생각하고 선조를 추모한다고 하였다.

> 아, 우리 성조(聖祖, 태조)가 창업하여 후세에 전하고, 우리 성고(聖考, 숙종)가 계술(繼述)하여 선조를 빛내니, 청구의 한 모퉁이에 예의(禮義)가 찬란하고 전국 오막살이의 백성들이 은택을 받았다. 불초하고 부덕한 나는 선조의 사업을 계술하지 못하여 예의의 풍속은 날로 떨어지고 오막살이의 백성들은 날로 곤궁해진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나도 모르게 두려워진다. 아 성고께서 직접 소지(小識)를 지으시고, 소자(小子, 영조)는 이 기문을 이어서 짓는 것은 모두 지난 일을 생각하고 선조를 추모하는 것이지 그 사찰을 생각해서는 아니다. 후대의 왕들은 이를 살펴 우러러 우리 성조께서 창업하신 공적과 우리 성고께서 계술하신 덕을 본받아 부지런하고 근검하며, 백성을 보호하고 구휼하라.[36]

于今三百餘年, 亦得全完於兵火, 可異哉. 適會寺僧, 欲治石移刻, 以圖永久, 而以其有太祖初諱, 故賚持上洛, 具呈內司, 盖以此刹, 本屬內司也. 再三披玩之餘, 遂摹刊作軸, 文以記于下方."

34) 『英祖實錄』 권91, 英祖 34년 4월 壬申(17일).

35) 『北道陵殿誌』 卷首, 「御製北道陵殿誌序」(奎2794). 『北道陵殿誌』는 함경도의 陵殿誌이다. 魏昌祖가 영조의 명을 받아 8권 3책으로 편찬하였고, 1758년(영조 34)에 함흥 감영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 책의 권1에는 숙종과 영조의 어제가 수록되어 있다.

36) 『金石集帖·聽』 「安邊釋王寺碑文追記」.

"噫. 我聖祖創業垂後, 我聖考繼述光前, 一隅靑丘, 禮義燦然, 八路蓋屋, 黎民被澤. 而弗肖弗德, 莫述先業, 禮義之俗日下, 蓋屋之民日困. 思之及此, 弗覺悚然. 噫. 聖考之親作小識, 小子之續成此記, 俱由於感舊而追先,

「釋王寺藏經」에는 후대 국왕인 숙종과 영조가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행적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난다.

○「釋王寺事迹碑」(『金石集帖・聽』)

1709년(숙종 35) 1월에 숙종이 태조가 석왕사에 대장경을 보관한 일을 기록한 글을 보고 지은 기문을 비석에 새긴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37] 掌樂院 主簿를 지낸 南鶴鳴이 짓고, 세자익위사 副率인 李濂이 썼으며, 李徵夏가 전액을 썼다. 글자를 새긴 각수는 都料 金有哲이다.

「釋王寺事迹碑」를 보면 고려 말에 태조가 해양(길주)에 있던 불경을 안변 석왕사로 옮기고 그 일을 기록한 글을 새긴 현판이 석왕사에 있었던 일, 300여 년이 지난 후 석왕사 승려가 숙종에게 이 현판을 보이자 숙종이 현판의 문드러진 글자를 고치고 그 아래에 발문을 써서 석왕사에 걸게 한 일을 기록했다. 그리고 석왕사 승려가 그 글자가 작아 오래 보존하기 어려우므로 돌에 새긴 비석을 세우기로 하고 남학명에게 그 음기를 요청하였다고 하였다.[38]

석왕사에는 정조가 1790년(정조 14) 9월에 세운 어제어필비도 있었다.[39] 정조는 전면에 어필로 "安邊雪峯山釋王寺碑" 아홉 글자를 쓰고, 비문과 揭를 직접 지었다. 이를 보면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후 자신이 국왕이 될 꿈을 풀이해 준 無學 대사가 머물렀던 토굴에 석왕사를 짓고 나무를 심었다.[40] 그 후 숙종과 영조가 석왕사 비문을 지었고, 仁穆王后, 仁元王后, 慈殿(貞純王后)과 慈宮(惠慶宮)이 석왕사 불상의 改金에 참여하였다. 정조는 그 공덕으로 경술년(1790)에 원자(순조)를 얻었고 이를 알리는 비석을 세웠다. 특이한 것은 세 왕후가 불상의

非以其寺爲可懷. 爲後王者覽此, 仰體我聖祖創業之烈, 我聖考繼述之德, 克勤克儉, 保民恤民."

37) 이 글은 南鶴鳴(1654-1722)의 『晦隱集』에도 수록되어 있다(권3, 雜文, 「釋王寺碑 己丑」).

38) 『金石集帖・聽』 「雪峰山釋王寺事跡碑」. "昔在勝國季年, 我太祖大王, 與鄭圃隱諸公同事, 遣人舟載海陽所在佛經, 移藏于安邊府雪峯山釋王寺, 海陽卽今之吉州也. 太祖仍命記其事, 刻板留寺中. 後三百餘年, 寺僧進其板于我殿下. 我殿下緬懷興嗟, 以宸翰補板刻之刊帙, 且跋其下, 命還揭于寺. 寺僧慮其字細, 難圖久遠, 移寫刻石, 且請余識其陰."

39) 『正祖實錄』 권31, 正祖 14년 8월 己巳(21일); 권32, 正祖 15년 4월 辛酉(17일).

40) 無學大使 自超가 태조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이야기는 1598년(선조 31)에 西山大師 休靜이 작성한 「雪峰山釋王寺記」에 나온다. 釋王寺의 창건 과정에 대해서는 임기영,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硏究』 54, 한국서지학회, 2013, 298-306면 참조.

개금에 참여한 때가 모두 무신년(1608년, 1728년, 1788년)이었고, 정조는 정순왕후와 혜경궁이 개금한 지 3년 만에 원자를 보게 되었다.[41]

이에 따라 석왕사에는 태조, 숙종, 영조의 어필비와 함께 정조의 어필비도 세워졌다.

6. 맺음말

지금까지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태조 이성계의 행적과 관련이 있는 금석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하에서는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의 특징을 정리한다.

왕실 관련 금석문은 왕실 인물의 묘도문자와 사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묘도문자는 81건, 사적은 27건이 수록되어 있다. 묘도문자를 인물의 지위에 따라 구분하면 왕과 왕비에 관한 것이 가장 많고, 왕자에 관한 것이 그 다음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숙종 대부터 정조 대까지 작성되었고, 특히 영조 대에 가장 많은 금석문이 작성되었다. 왕실 관련 금석문은 국왕이 직계가족의 죽음을 추모하거나 선왕의 행적을 현창하기 위해 작성하였으므로 어제와 어필이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왕의 비석이 사라진 곳에 새로 세우거나 여러 번 건립을 시도한 끝에 세운 비석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행적에 관한 금석문은 함흥과 영흥, 개성,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태조는 조선을 건국한 창업주이므로 후대의 국왕들은 '聖祖'로 표현되는 태조의 행적을 드러내는 어제 어필비를 많이 세웠다. 숙종은 개성 행차 때 태조의 옛집을 방문하여 "穆淸殿丕啓靈慶之碑" "敬德宮丕啓靈慶之碑"를 어필로 쓰고 어제시를 남겼으며, 영조는 태조 탄생 6주갑을 맞아 태조가 태어난 장소에 "太祖大王誕生舊里"를 어필로 썼다. 또한 숙종과 영조는

41) 『弘齋全書』 권15, 碑, 「安邊雪峯山釋王寺碑 幷偈」. "安邊雪峯山之有釋王寺, 創自國初. 蓋我太祖夢興王之徵, 而就神僧無學於土窟中, 占釋其義. 故於龍飛之際, 建寺於土窟舊址, 名曰釋王. 給田幾頃, 僕幾口, 俾供佛事, 而洞之松, 園之梨, 有我太祖手植. 碑之二記, 又肅祖·英考宸章也. (…) 若法相之加金, 始于仁穆·仁元后, 逮我慈殿·宮, 前後凡三戊申也. 禪教之因圓果熟, 多以三計, 藏曰三藏, 聖曰三聖, 乘曰三乘, 諦曰三諦, 德曰三德, 是也. 而粵三年庚戌, 誕我元子, 則盛矣哉. 菩提之實心潛孚, 螺髻之神照徯應, 祝史無煩, 景祿自至, 若是其如幾如式也."

안변 석왕사에 남아 있는 태조의 어필을 보고 자신들의 어필을 추가하였다. 후대에는 숙종과 영조의 행적을 계승하여 정조와 고종의 어필비가 세워지기도 하였다. 이는 태조의 위업을 드러내려는 선왕들의 행적을 계승하면서 조선이라는 국가의 영속을 기원하는 기념비적 구조물을 구축하는 작업이었다.

지방에 태조의 행적을 기록한 비석을 건립할 때에는 관찰사를 비롯한 현지 지방관들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태조의 행적이 있던 지역의 관찰사는 국왕에게 태조의 기적비를 세우자고 요청하였고, 기적비의 비문을 직접 짓는 경우가 많았다. 함흥 영흥 지역에 세워진 기적비에는 특히 함경 관찰사 한준겸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또한 기적비를 세울 때에는 현지에 있던 都事, 敎授, 判官, 別差, 都料 등 관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지방관들의 이러한 행위는 국왕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였다.

태조의 행적에 관한 금석문을 보면 임진왜란의 피해가 크게 나타나며,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사적비를 건립한 경우가 많았다. 함흥 귀주동에 있던 함흥 본궁과 독서당, 개성의 목청전과 경덕궁은 모두 임진왜란 때 건물이 불타서 사라졌다. 전란 후 함흥 본궁과 독서당은 새 건물을 지었지만, 목청전과 경덕궁은 여전히 빈터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영흥 흑석리의 태조 탄생지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왕과 관리들은 태조의 행적을 기록한 기적비를 세워 후세에 전했으며, 이는 전란의 피해를 복구하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금석집첩』에 수록된 왕실 자료에는 선대 국왕과 왕실 가족의 행적을 후대에 널리 알리려는 국왕과 신하들의 노력이 잘 나타난다.

▮ 참고문헌

『金石集帖』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國朝寶鑑』
『松都誌』
『北道陵殿誌』
『太祖高皇帝誕降舊里』

南鶴鳴, 『晦隱集』
正祖, 『弘齋全書』

김문식, 「1740년 국왕 영조의 개성 행차」, 『조선시대사학보』 52, 조선시대사학회, 2010, 125-156면.
김우진, 「1693년 숙종의 개성 행차와 의미」, 『한국문화』 88,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9, 165-186면.
김재은, 「1872년 개성 행행(行幸)에 나타난 정치적 지향과 효과」, 『韓國思想史學』 48, 한국사상사학회, 2014, 283-315면.
김지영, 「경쟁하는 두 왕조—조선 국왕의 개성 행행 의례와 '문명치지'의 약속」, 『서울학연구』 86,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022, 115-141면.
박정애, 「18-19세기 咸鏡道 王室史蹟의 시각화 양상과 의의」, 『정신문화연구』 126, 한국학중앙연구원, 2012, 117-154면.
_____, 『조선시대 평안도 함경도 실경산수화』, 성균관대 출판부, 2014.
심경호, 「교토대학 소장 금석집첩(金石集帖)에 대하여」, 『민족문화연구』 83,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9, 211-248면.
_____, 『한국의 석비문과 비지문』, 일조각, 2021.
박철상, 「朝鮮時代 金石文 자료의 정리에 대하여」, 『대동문화연구』 10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18, 81-107면.
_____, 「金在魯家 『金石集帖』 纂集 과정 연구」, 『『金石集帖』의 종합적 연구』 Ⅰ,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윤 정, 「조선후기 개성 잠저구기의 표장과 국왕의 인식: 숙종·영조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문화사』 상, 일지사, 2007.
李旺茂, 「1910년대 순종의 창덕궁 생활과 行幸 연구」, 『조선시대사학보』 69, 조선시대사학회, 2014, 295-324면.
임기영, 「安邊 釋王寺 간행 판본의 서지적 연구」, 『書誌學硏究』 54, 한국서지학회, 2013, 295-357면.
藤本幸夫, 『日本現存朝鮮本硏究(史部)』, 東國大出版部, 2018.

【Abstract】

The Royal Materials in *Geumseokjipcheop* and King Taejo Lee Seong-gye's Activities

Kim, Moon-Sik*

This paper was written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oyal materials contained in *Geumseokjipcheop*.

There are a total of 108 cases of epigraph, which is related to the royal family in *Geumseokjipcheop*, 81 cases of tomb letters of the royal family, and 27 cases of historical records of the royal family's activities. Most of them were written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and King Jeongjo, and the most of epigraphs were written in the reign of King Yeongjo. Epigraphs related to the royal family, were written by the king to commemorate the death of his familiy or to reveal the deed of his former king, so there are many writings and handwritings written by the king.

There are many king's writings and handwritings in the epigraphs which records the deeds of King Taejo Lee Seong-gye. King Sukjong and King Yeongjo put down their own handwritings while setting up the monument where King Taejo's deeds were located, and King Jeongjo and King Gojong also inherited it and erected many monuments written in their own handwriting. This was to brighten the great achievements of King Taejo and to inherit the actions of the previous kings.

When the monument was erected to record King Taejo's activities, local officials controlling the area participated. The governor asked the king to erect a monument that recorded King Taejo's activities, and they often wrote the inscription on the tombstone. Local officials, including local leaders,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monument. This was to show their loyalty to the king.

When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broke out, a number of buildings related to King Taejo's activities were burned down. These include the Hamheung

* Professor, Dept. of History, Dankook Univ.

Bongung Palace and the reading hall in Hamheung, and the Mokcheongjeon Palace and Gyeongdeokgung Palace in Kaesong. After the war, some of the buildings were newly constructed, and some of them remained empty. The kings and officials set up monuments in these places to publicize King Taejo's contribution. It was also an effort to repair the damage of the war.

The royal materials contained in *Geumseokjipcheop* show the efforts of kings and officials to publicize the deeds of the previous kings and royal families to future generations.

Keywords: *Geumseokjipcheop*, King Taejo, the reading hall, Mokcheongjeon Palace, Gyeongdeokgung Palace.

접수일: 2022.06.29.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17.